

화인케미칼, 임금 5% 인상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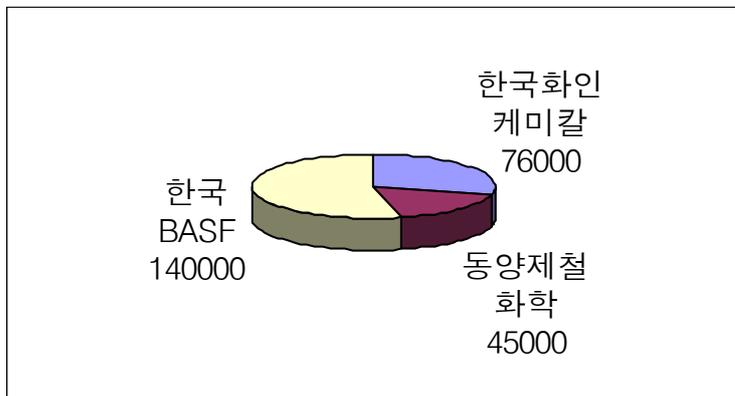
2004년 1월부터 적용 ... 특별승호제 및 주5일제는 2005년 협의키로

LG-Caltex정유, LG화학, 한국BASF 등 민주노총 <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광주·전남지부 준비위원회 여수공동투쟁본부>와 함께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화인케미칼(대표 허달) 노조가 7월14일 9차교섭을 통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.

핵심 쟁점사항이던 임금문제는 기본급 5% 인상과 격려금 50% 지급으로 타결을 맺고 기본급 인상률은 2004년 1월1일부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.

또 상용직, 촉탁직은 2004년 8월1일자로 정식사원으로 발령하기로 했으며,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승호제도 와 주40시간(5일) 근무제는 차기 단체협상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.

국내 TDI 생산능력(2003)



한편, 한국화인케미칼은 1982년 국내 최초로 PU(Polyurethane)의 원료인 TDI(Toluene Diisocyanate)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7만6000톤의 TDI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. <심주영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16>